

## 04. 성공적인 인터뷰 방법론

이나리 기자(중앙일보 경제부문 IT팀)

### 1. 인터뷰 기사란?

인터뷰 기사는 ‘인터뷰(Interview)’라는 형식을 통해 쓴 인물기사다. 사람의 얼굴과 그가 직접 풀어내놓는 이야기가 등장함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기사보다 주목도가 높다.

좋은 인터뷰 기사를 쓰는 첩경은 ‘인터뷰’ 그 자체를 잘 하는 것이다. 이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기자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 기사는 기자의 판단력, 섭외력, 취재력, 기획력, 문장력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인터뷰는 기자와 취재원의 공적 대화다. 독자가 알고 싶고 흥미를 느낄만한 것을 기자가 대신 물어 답을 들어오는 것이다.

인터뷰 기사 역시 ‘뉴스’다. 관련자나 전문가의 입을 빌어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정 인물을 통해 사회적 사고의 흐름과 의견의 향배를 보여준다. 때문에 인터뷰는 종종 중요한 정보의 출처가 된다.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자체가 특종이 되기도 한다.

### 2. 인터뷰의 실재

#### 1) 인물 설정

뉴스 인터뷰일 때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그와의 인터뷰가 불가능할 때는 주변인 중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는다.

인물탐구 인터뷰라면 새로운 사회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 독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인물, 유명인사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흥미를 끄는 요소를 가진 인물이 주요 대상이다.

#### 2) 사전 준비 및 질문지 작성

알맹이 있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보도를 숙지하고 △기고문·책·출연작 등을 챙겨 보며 △친구·라이벌·동료 등 주변을 취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기사의 맥락을 잡고, 그를 기준 삼아 질문지를 작성한다.

### 3) 인터뷰 진행

인터뷰는 오감으로 하는 작업이다. 상대의 몸, 자세, 말투는 많은 것들을 웅변한다.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해야만 좋은 질문을 던지고, 기사도 재미있게 쓸 수 있다. 메모는 중요한 쟁점·개념·표현 등 포인트가 되는 것들 위주로 적는다. 얘기를 주의깊게 듣다 인상 깊은 말이나 표현이 나오면 되도록 완전한 문장으로 받아 적는다.

### 3.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 1) 뉴스성 인터뷰 기사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 현안이나 새 소식, 사건사고 등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인물에 대한 묘사보다는 뉴스와 주제에 집중한다. 이 형태의 인터뷰는 특히 초점이 분명해야 한다. 이 얘기 저 얘기를 중언부언해서는 안된다. 목적인 그 주제에 집중해 ‘제목거리’가 될만한 발언을 이끌어내야 한다.

뉴스성 인터뷰에서 인물의 발언은 경어체보다 평서체로 처리하는 것이 대체적 경향이다. 독자가 인터뷰 대상에 적당한 거리감을 갖고, 그의 발언에 대해 감정적 몰입보다는 논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다.

#### ① 인사(人事) 관련 기사

뉴스성 인터뷰의 상당수는 인사 관련 기사다. 새 인물이 요직에 등용되면 그가 갖게 될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뷰로 비중있게 다룬다. 문답식 인터뷰와 인물 해설 기사를 함께 배치해 가독성을 높이기도 한다. 지면이 충분할 때는 인물의 성격과 스타일을 짐작케 하는 에피소드 등을 적절히 섞어 넣어 독자의 흥미를 배가한다.

#### ② 인물을 통해 현안을 다루는 기사

현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인터뷰 해 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자를 대신해 기자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것’은 인터뷰의 기본이다.

#### ③ 사건 관련 인터뷰 기사

인물보다는 사건 그 자체가 초점이다. 때문에 때에 따라선 인물의 이름이 가명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인터뷰 대상의 발언을 표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언 중 생략된 부분을 괄호()에 넣어 보강하거나, ※표

시 등을 해 발언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기도 한다.

#### ④ 인터뷰 자체가 특종이 되는 기사

유력 인사가 뉴스 가치가 높은 발언을 할 경우 인터뷰 자체가 특종이 되기도 한다. 무명인사이나 그가 가진 정보가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도 특종이 된다.

### 2) 인물탐구형 인터뷰 기사 작성

‘잡지적 인물 기사’라고도 불리는 인물탐구형 인터뷰 기사는 일단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시사적 쟁점보다는 인물의 개성, 특징 등을 자세히 부각시킨다.

마이애미대의 브루스 개리슨 교수는 인물기사란 ▲해당 인물의 인적 사항(고향·부모·형제·성장과정·교육 등) ▲현재의 생활 또는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 ▲해당 인물과 얽힌 일화나 에피소드 ▲개인 관련 사항(키·주량·습관·여가 생활 등)과 가족사항(결혼 여부·자녀 수·그들과의 관계) 등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인물탐구형 인터뷰에도 주제는 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과일목요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히 구성해야 한다.

#### ① 첫 문장에 힘 주기

일반 기사에선 첫 문장이 얼마나 주제를 잘 함축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 인물탐구형 인터뷰에선 리드를 통해 인물 소개와 기사의 주제,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총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의 관심을 확 끌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사 전체의 톤과 주제에 걸맞는 리드를 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 ② 이야기 완성하기

짧은 기사 안에 인터뷰이의 삶과 인생 역정을 모두 우겨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범하는 실수가 이야기를 대충 건너뛰는 것이다. 물론 기사 속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녹여 넣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독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사안들에 대해선 그 이유와 시종(始終)을 분명하게 기술해 놓아야 한다.

#### ③ ‘정리’는 나의 힘

앞의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복잡한 인생사를 간략히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두 문단으로 그 사람의 평생과 그 성격적 특성까지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그림을 그린 뒤 그 중 불필요한 사실들은 버리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를 한다.

#### ④ 리듬과 속도감 살리기

기사의 리듬을 살리고 속도감을 더하려면 문장에서 기름기를 걷어내야 한다. 군

더더기 조사, ‘위치해 있다’ 류의 동어 반복, 한 단어를 문체 의식 없이 반복해 쓰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접속어도 되도록 없앤다. 우리 말을 써도 문제 될 것 없는 자리에 한자어를 쓰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다. 또 하나, ‘단문 쓰기’는 인터뷰 기사 문장의 생명이다.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굳이 한 문장으로 붙여 쓰는 것은 글의 운율 상 그것이 꼭 필요할 때만 시도한다.

#### ⑤ 구어체가 답이다

인터뷰 기사를 쓸 때는 구어체 사용에 힘쓴다. 인터뷰이가 한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그의 감정을 넘겨짚어 관습화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기사에 생동감을 주려면 인터뷰 대상의 어투와 표현을 그대로 살려 기사에 반영한다.

#### ⑥ 현장성 살리기

인터뷰 기사에는 대상의 말 뿐 아니라 그의 시선, 손놀림, 머뭇거리는 어투, 표정과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재미있는 인터뷰는 현장감이 한껏 살아있는 인터뷰다. 방 한구석에서 꾸들꾸들 말라가는 걸레, 연필 닿는 곳이 움푹 파인 손, 깔끔하지만 과한 치장이 부담스러운 사무실. 이를 통해 기자는 그 어떤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⑦ 다양한 형식 실험하기

틀에 박힌 글을 좋은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할 수 있다면 다양한 형식을 시험해 본다. 가족을 한 사람씩 인터뷰해, 이를 토대로 한 주제가 관통하는 한 꼭지의 글을 쓸 수도 있다. 소셜 형식과 기사 형식을 접목한 인터뷰도 가능하다.

#### ⑧ 끝 문장에서 힘 빼기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달까. 뭔가 결어다운 결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는 일이 종종 있다. ‘기대해 본다’ ‘사회의 귀감으로 남을 것이다’ ‘얼굴에 하나 가득 미소를 띄웠다’ 이런 류의 관습적 결어는 기사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린다.